

2021년 8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 1) K 교회를 지속적으로 섬길 지의 여부를 9월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를 보내어 주시도록. K 교회의 합당한 모임 장소 임대를 위해



한 달간의 기도 후에 9월초부터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10월초에 임대장소를 구해 그 때 이후로 이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주일 성탄 예배를 드린 후 함께 식사할 때입니다. 4-5명의 기존 신자들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성경을 가르치고 신뢰의 관계를 쌓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달 전에 두 형제가 주일에 교회에서 설전을 벌이다 서로가 존재하는 한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없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기존부터 있었던 문제였기에 둘 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더라도 절대 가섭을 하지 않고 분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세례도 (세례 준비과정 중의 형제) 줄 수 없고, 주일 교회에

나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2주 동안의 공백 후 선배인 형제가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함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2022년 새해 다짐은 '제자'입니다. 너무 부드럽고 응석을 잘 받아주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 상의 외국인 일꾼들 모습 때문에 현지 신자들이 제대로 서지 못한 모습이 아픕니다. 무슨 성감을 하던지 새해에 이들이 각자 한 명의 제자를 양육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미 이 목표를 선포했기에 귀찮게 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이로써 수혈이 급한 당면 문제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입니다.

동역자는 다행히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러셨으면 순둥이인 제가 아무나 받아들여 현지인 교회라는 정체감을 상실하고, 같은 도시의 국제교회처럼 10여명이 넘는 사역자들로 교회가 우글거렸을 것입니다.

홍 성애: 찬양 인도와 여성 신도들을 방문하는 것을 중점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음정 박자 감각이 없는 사람들과 아마추어 실력의 반주로 이루어진 작은 시골 교회 찬양시간이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세상에서 지치고 고달픈 삶의 고통을 주님께 맡겨, 주시는 평강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귀한 예배자들로 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10월 팀 리더쉽 미팅: 내년초 전체 수련회와 관련된 모든 결정이 지혜롭게 내려지도록. 새로운 리더쉽 후보 선출과 투표를 위해 (저희는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교회 개척에만 올인할 예정입니다)

팀 전체 수련회는 기도해주신 덕분에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6일간의 1월, 비대면 회의에서 5일간 4월에 대면 미팅을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미 두 회원이 새

리더로 입후보해서 멋진 선거를 치를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쫓아가느라 버거운 수련회가 아니라 핵심 안건 이외에 교제에 중심을 두는 모임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회의를 정점으로 리더쉽을 내려 놓고 일반 평민이 되어 새 리더 밑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자못 흥분됩니다.



위의 사진은 11월 이웃 도시에 있는 아디아만 교회에서 한 마가복음 강의 장면입니다. 와우!! 넘 감사했어요 한 장로님 부부와 한 여성도의 모습에...5년 넘게 이곳을 다녔지만 늘 수동적이시고 성경공부 시간에도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분들의 질문공세에 시달렸습니다. 절대 집에서 설거지 안 하시는 장로님이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사모님은 적극적으로 음식을 장만해 오셨어요. 기존에는 너무 잘 섬기시는 다른 장로님 부부가 있으셨거든요...그 분들이 떠난 빈 자리가 이 분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빈 자리를 만드는 지혜를 자주 보게 되기를

3) 2021년 12월 기도 제목들

- 2022년 K 교회 지체들이 각자 한 사람을 양육하는 제자로 서도록
- 매주 목요일 아침 A 씨와의 관심자 모임...새로 참석할 또 다른 관심자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 아다나 대학 캠퍼스에서 젊은 영혼을 보내어 주시도록 (매주 한 번 전도 계획 중)
- 첫 딸 하림이가 내년 6월까지 터키 앙카라 국제학교에서의 남은 교사의 삶을 기쁨으로 잘 마무리하고 이후 한국에서 정착과 구직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터키 남부 태양의 도시, 아다나에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모두 강건하십시오.

2021년 12월 27일

김헌수, 홍성애 (하림, 소정, 유진) 배상